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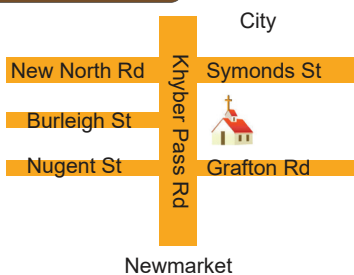
# 환영합니다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갈보리소식

1. 교회창립 17주년을 맞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 오늘 임직받은 직분자들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력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성숙하도록 섬기기 바라며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 임직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창립 감사예배와 임직예식에 참석하고자 외부에서 오신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예배 후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식사하시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바누아투 단기선교 팀(15명)이 7일간의 일정을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주신 여러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 창립 감사 기념으로 성경책을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에 한권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7. 창립 예배와 임직식을 위해 음식으로, 여러 부분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 새벽기도회가 매 금요일 새벽 5시 50분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 찾아 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 주일예배 주일 PM 1:00
- 청년모임 주일 PM 3:00
-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 아동부 주일 PM 1:00
- 중고등부 주일 PM 1:00

## 섬기는 사람들

- 담임목사 : 이태한
- 부목사 : 심창진
- 부목사 : 이성철

## 설교 방송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 2016년 7월 17일 창립감사주일 및 임직예식

18권 29호

## 2016년 표어

기록 (롬12:1)

부흥 (마5:8)

나눔 (잠11:24,25)



교회창립 1999년 7월 18일

1. 양육과 훈련을 통해 선교적 제자를 세우는 교회
2. 교회학교를 일으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3. 선교와 전도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4. 섬김과 나눔을 통해 이민자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교회



담임/목사  
이태한

Galvory Church

해외/한인/장로/회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www.calvary.org.nz

## 1부 감사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 양	연합 찬양단
◎예배로 부름	하박국 2:20, 디모테전서 3:15
◎찬 송	큰 영화로신 주 35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17년의 발자취	김선우 형제
찬 송	내 주의 나라와 208장
대포기도	김철재 집사
성경봉독	마가복음10:35-45
찬양대 찬양	위대하신 주님/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 교	스스로 종이 되신 그리스도/ 손인웅 목사
축하연주	최은수 외
특 송	아동부
헌금기도	인도자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 청년 모임

오후 3시  
소그룹 나눔과  
성경공부  
기도 / 홍진혁 형제

## 수요 예배

찬양 수요 찬양단  
기도 박현주 집사  
성경봉독 고린도후서 7:8-16  
설교 두가지의 근심/  
이태한 목사  
광고 인도자  
찬송 주 예수여 은혜를/  
368장  
주기도 다같이

## 7월 교회일지

선교파송주일: 7월 3일(주일) 예 배 안 내: 김철재/김명춘  
단기선교: 7월 5일(화)-12일(화) 새신자안내: 박혜숙/이정인  
금요저녁기도회: 7월 8일(금요일) 최희숙/  
창립주일(임직): 7월 17일(주일)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공동체주관 수요예배: 7월 27일(수) 주 방 봉 사: 윤경례/박제란  
김명옥/유현남  
민경아

## 7월 예배봉사자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박소진 집사  
다음 주일: 박덕철 장로  
다음 주일 청년부: 김효설 자매  
7월 27일 수요: 박후임 집사  
7월 27일 애찬: 남영수 집사  
7월 31일 주일: 박병민 장로  
7월 31일 청년부: 마현정 자매

## 권사임직을 받으며 - 김현주집사

### (1) 어머니로서의 권사

어머니가 없는 가정은 쓸쓸한 가정입니다. 어머니의 직분을 감당할 성도가 없는 교회도 쓸쓸한 교회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입니다. 권사로 교회에서 사랑의 직분을 감당하는 어머니가 되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어머니이듯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나 어머니의 손길이 요구되고 어느 때나 어머니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권사로서 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동시에 어려운 일을 사랑과 이해심으로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2) 봉사자로서의 권사

교회의 직분은 봉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수고와 봉사를 많이 해도 칭찬과 명예는 아버지로 향하게 되듯 교회에서도 권사의 수고와 노력이 많으나 칭찬보다는 원망과 시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여성이 한 사람도 없으나 예수와 제자들을 도운 여성들은 많습니다. 화합 단결하여 예수의 전도사업의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 (3) 협력자로서의 권사

항존직 권사로 안수를 받으면서 교회 앞에 서약하겠습니다. 교역자와 협력하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교인들 중에 어려운 자, 병든자, 시험 당한 자를 돌아보고 그 사정을 목사에게 알리고 위해서 기도 하겠습니다.

### (4) 전도자로서의 권사

한국의 복음이 일찌기 안방 문을 열고 들어왔듯이 가정을 향해 복음을 전하여야 할 사명이 너무나 크고 넓습니다. 교인의 심방이나 새신자 전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위로를 나눠주는 권사가 되겠습니다.

## 끝까지 충성하라 - 손조훈집사

먼저 부족한 저희를 택하시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은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오늘 임직식을 맞이 합니다. 임직이라는 의미는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사명을 받는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석달 넘게 피택자 교육을 받으면서 감당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많은 시간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 보려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갈보리교회가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뉴질랜드에서 보았을 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교회로 발전되길 희망합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님과 여러 장로님들의 교육과 권면의 말씀과 성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기도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종의 직분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선한 청지기로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과 갈보리교회 성도님 앞에서 힘써 일하기를 소원 합니다.

# 할렐루야!

갈보리교회를 뉴질랜드 오클랜드 땅에 세우시고 17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로 주신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모리아산(창 22:2)에 천 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 준비시키시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대하3:1)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한 번의 천 년이 지나고, 그 성전에서 내려다 보이는 갈보리 언덕,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고뇌하며 믿음으로 지나갔던 그 언덕 길에 이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독생자,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르게 하시고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그로부터 또 이천 년 후에 이 곳에 “갈보리” 라는 이름의 교회를 세우신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면 너무 지나친 해석일런지요?

17주년, 170주년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허락하신 곳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갈보리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영접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요1:12),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하는 사람(롬8:17)들이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 노릇 할 놀라운 존재(계22:5)들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의 사명입니다(마25:14~30). 재능, 건강, 지혜, 물질, 은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그분의 뜻대로 행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사명자 들입니다.

남들 보다 더 받은 것이 없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마25:31~48),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떠 주는 것(마10:42)도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한 친구됨의 감격입니다(요15:14,15)

좋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친구됨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마28:18)의 절친 이랍니다.

끝으로, 신랑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처녀의 모습입니다(마25:1, 고후11:2).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늘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고, 말씀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일은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속4:6)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11:13)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허락하신 성령의 권능(행1:8)으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막16:17, 18), 예수님께서 하신 일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요14:12) 말씀이 실체가 되는 능력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18주년 기념 예배 때는 보냄 받은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수님께 나누던 모습(눅10:17)과 같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기쁨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 정현열집사

집례: 당회장

## 2부 임직예식

예식사	집례자
서약	집사, 권사, 교우에게 당회장
집사 안수기도	위원 당회장
약수례	안수위원
임직패 수여	집사 당회장
권사 안수기도	위원 당회장
약수례	안수위원
임직패 수여	권사 당회장
선포	당회장
축사와 권면	김용환목사
성경봉헌	임직자가 교회에 손조훈집사
기념품증정	목사가 성도에게 손인웅목사
축하위원	단기선교팀
광고	이태한목사
찬송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
축도	손인웅목사



손인웅 목사

덕수교회 원로목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총장(현)

대한성서공회 이사장(현)

## 임직자 소개



손조훈집사

1974년 12월 유아세례  
1987년 입교 2003년  
갈보리교회 등록

“나의 나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고전15:10)”



박제란집사

1979년 6월 세례 2004년 9월  
갈보리교회 등록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로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김현주집사

1990년 세례 2009년 10월  
갈보리교회 등록

어머니로서의, 봉사자로서의,  
협력자로서의, 전도자로서의  
권사가 되려고 합니다.



박후임집사

1991년 세례 2003년  
갈보리교회 등록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감사와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 절대진리와 구원, 그리고 절대신앙의 공동체를 소망하며

이태한 목사

성년을 목전에 둔 교회 창립 17주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온 성도와 함께 축하합니다.

17년의 시간이 흘렀다기 보다는 17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할 만큼 기쁨과 아픔을 함께 아우르는 소중한 뒤안길, 기억하기에 충분한 17년의 역사입니다. 이민자의 삶의 고뇌를 삭히려 교회를 찾았지만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때때로 교회 공동체가 그 고뇌를 덧나게 할 때도, 채 아물기도 전에 더 큰 아픔을 초래하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이국땅의 외로움과 서러움의 다양한 상처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녹아져 내리는 치유의 감격에 눈시울이 뜨거워 지다 못해 섬섬옥수를 맞잡고 고맙다고 감사하다며 과اند소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부대낌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부대낌으로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의 삶이라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렇게 부대끼는 사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첫 뿔 밀레니엄을 지나 바야흐르 성년을 반 족장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나간 17년의 부대낌은 안에서 겪어야 했던 자연스러운 성장통이었다면 이제 또 다시 보내야 하는 아득한 세월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외부에서 다가오는 도전들과 싸워야 하는 긴장의 순간 들일 것입니다.

그 도전들은 어쩌면 이미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리기 전에 예견된 진통이었지만 밀레니엄을 지나면서 더욱 노골적이고 더세어져 실로 교회 공동체를 허물기에 충분한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가 절대 진리에 대한 상대적 진리(?)의 도전입니다. 기독교만 진리라는 것이 절대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절대진리는 지금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종교를 상대화 시켜버렸습니다.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 하지만 그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 기독교도 그 종교들 속에 하나라는 세상입니다.

융통성이 있어 보이고 타 종교도 존중할 줄 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인격적이고 배려도 있어 보이는 그럴듯한 이론에 함몰되고 찢어드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이 이론을 마음속 한켠에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대적 논리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타종교를 무시하고 부인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대 진리는 기독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둘이라면 그 둘 중 하나는 진리가 아니거나 유사 진리일 것입니다. 갈수록 상대적 진리(?)가 만연하고 횡횡할 것이고 교회를 침범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도전에 절대 진리로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절대 구원에 대한 상대적 구원의 도전입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절대 구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들 마다 자신들만의 구원의 방법이 있듯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다라고 하면서 절대구원을 폄하하고 상대적 구원

구원을 운운하는 현실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독선적이며 타종교를 적대시하는 비인격적인 처사라고 라고 몰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이 예수님이 절대 구원자임을 부인한다고 해서 분명한 사실이 반복될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요, 실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여 어떤 사설에도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상대적 구원의 거센 폭풍을 맞서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셋째는 절대 신앙에 대한 상대적 신앙의 도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진리, 예수님 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불신케하며 의심케하는 상대적 신앙이 우리 삶의 현장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들이지 않으면 불이익 혹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성경적 신앙에 근거하여 동성애자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았다고, 결혼 주례를 못하겠다고 해서 직장을 떠나야 했고 사법 당국에 고소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절대신앙도 마음대로 표현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게 좋은 것이 아니냐 그냥 바람부는대로 물결치는대로 살지 뭐 그렇게 곧이 곧대로 신앙생활 필요가 있는가 상대적신앙으로 살아가라는 시대가 되었고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세가지 도전이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맞서야 하고 헤쳐나가야 할 도전들입니다. 창립 17주년을 맞으면서 절대진리, 절대구원, 절대신앙으로 하나되어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남교회  
열일곱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